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		
		배포일시	2021. 10. 8.(금) / 총 5매(본문3, 참고2)		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	담당자	• 과장 박정호, 사무관 이일보, 주무관 이상화 • ☎ (044) 201-5087, 5081		
	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	담당자	• 처장 이문영, 연구위원 김주영 • ☎ (054) 459-7440, 7441		
보도일시		2021년 10월 9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8.(금) 14:20 이후 보도 가능			

##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충청남도-수도권 간 대중교통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

- 8일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· '22.1월부터 시행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백승근, 이하 대광위)와 충청남도(지사 양승조),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권용복)은 알뜰교통카드\*를 기반으로 충청남도의 광역교통 환승할인을 지원하는 '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'을 10월 8일(금) 충남도청에서 체결했다.

\*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·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여 대중교통비의 최대 30%를 절감

- '충남형 알뜰교통카드'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현행 알뜰교통카드로 충청남도와 수도권 간에 대중교통수단(버스·전철 등)을 이용할 때 환승할인을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.

- 현재 서울·인천·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광역 대중교통 이용 시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, 수도권과 충청남도 간에는 환승할인을 받을 수 없어,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는 불편이 있었다.
- 대광위·충청남도·한국교통안전공단은 충청남도와 수도권 간 광역 대중교통 이동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충청남도 광역교통 환승할인을 지원하는 '충남형 알뜰교통카드'를 도입하게 되었다.
- '충남형 알뜰교통카드'를 이용하게 되면 알뜰교통카드 혜택인 대중교통비 최대 30% 절감 이외에 지하철·버스의 기본요금 수준인 1,250원~1,500원을 추가로 할인(할인액은 충청남도에서 지원) 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.



< '충남형 알뜰교통카드' 이용 혜택(예시) >

예시: (충남버스) 단국대 - (5.1km) - (수도권 전철1호선) 천안역 - (55.1km) - 수원역

- 시행전 : 버스(1,500원) + 전철(2,350원) = 3,850원

- 시행후 : 버스(1,500원) + 전철(2,350원) - **할인(1,825원)** = 2,025원

\* 환승할인(1,250원) + 알뜰카드 마일리지(350원) + 카드사 할인(225원, 실결제액의 10%)  
= **총 할인 1,825원**

※ 월 환산(22일 44회) : 시행전(169,400원) - 시행후(89,100원) = 80,300원(**47.4%절감**)

- 대광위·충청남도·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충청남도의 광역 환승할인 시스템 구축(1단계)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- 또한,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충남도민의 경우 대전·충북·전북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환승할인(할인액은 충청남도에서 지원)을 받을 수 있다.
  - \* 2단계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시행중인 ‘어르신(만75세) 버스무임 교통카드’와 만18세 이하 대상 광역환승 할인을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로 연계(’22.4월 예정)
-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“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으로 충청남도와 수도권·대전권 등 타 시도 간 광역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,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지역의 대중교통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” 라고 하면서,
  - “앞으로도 알뜰교통카드와 지역별 대중교통 시책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 이일보 사무관(☎ 044-201-508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충남형 알뜰교통카드의 도입 위한 참여기관별 주요 역할

-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
  - 알뜰교통카드 정책 총괄, 관계 법령의 정비, 국고보조금의 교부
  - 지방자치단체,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업무에 관한 조정 등
- 충청남도
  - 알뜰교통카드와 연계된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및 요금할인제도 마련
  -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마일리지(보조금) 지급·시스템 개발·유지관리 등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
- 한국교통안전공단
  -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산정,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
  - 보조금의 집행·정산, 이용자 정보 관리, 통계분석 등

## 참고2

##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시 교통비 절감 효과 (예시)

### □ 충남버스-수도권 (예시)

- 단국대-천안역-수원역: 최대 47.4% 절감

예시: (충남버스) 단국대 - (5.1km) - (수도권 전철1호선) 천안역 - (55.1km) - 수원역

< 도입 이전 > 버스(1,500원) + 전철(2,350원) = 3,850원	⇒	< 도입 이후 > 버스(1,500원) + 전철(2,350원) - 할인(1,825원) = 2,025원	< 총 할인 금액 > 환승할인 (1,250원) + 알뜰카드 마일리지(350원) + 카드사 할인 (225원) = 1,825원
※ 월 환산(22일 44회) : 시행전(169,400원) - 시행후(89,100원) = <b>80,300원(47.4%절감)</b>			

- 단국대-천안역-서울역: 최대 44.3% 절감

예시: (충남버스) 단국대 - (5.1km) - (수도권 전철1호선) 천안역 - (94.9km) - 서울역

< 도입 이전 > 버스(1,500원) + 전철(2,950원) = 4,450원	⇒	< 도입 이후 > 버스(1,500원) + 전철(2,950원) - 할인(1,975원) = 2,475원	< 총 할인 금액 > 환승할인 (1,250원) + 알뜰카드 마일리지(450원) + 카드사 할인 (275원) = 1,975원
※ 월 환산(22일 44회) : 시행전(195,800원) - 시행후(108,900원) = <b>86,900원(44.4%절감)</b>			

- 선문대-아산역-평택역: 최대 51.7% 절감

예시: (충남버스) 선문대 - (5.2km) - (수도권 전철1호선) 아산역 - (26.5km) - 평택역

< 도입 이전 > 버스(1,500원) + 전철(1,950원) = 3,450원	⇒	< 도입 이후 > 버스(1,500원) + 전철(1,950원) - 할인(1,785원) = 1,665원	< 총 할인 금액 > 환승할인 (1,250원) + 알뜰카드 마일리지(350원) + 카드사 할인 (185원) = 1,785원
※ 월 환산(22일 44회) : 시행전(151,800원) - 시행후(73,260원) = <b>78,540원(51.7%절감)</b>			

### □ 충남버스-대전권 (예시)

사례: (충남버스) 금산버스터미널 - (10.4km) - (대전버스) 마전정류장 - (23.3km) - 대전역

< 시행전 > 충남버스(1,500원) + 대전버스(1,350원) = 2,850원	⇒	< 시행후 > 충남버스(1,500원) + 대전버스(1,350원) - 할인(1,725원) = 1,125원	< 총 할인 금액 > 기본요금 할인(1,350원) + 알뜰카드 마일리지 (250원) + 카드사 할인 (125원) = 1,725원
※ 월 환산(22일 44회) : 시행전(125,400원) - 시행후(49,500원) = <b>75,900원(60.5%절감)</b>			